

'가장 아픈 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 서노송예술촌, 유네스코 인증 첫 관문 넘어

전주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한국위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 획득
평가단,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 의미 있는 도심 재생 프로그램' 평가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마을로 만드는 전주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이 유네스코 인증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전주시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한 '2019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공식 프로젝트 인증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한국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실천사례를 발굴해 이를 국내외에 소개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유네스코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마을로 만드는 전주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이 유네스코 인증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사진은 선미촌 설치미술전 현장을 방문한 김승수 전주시장.

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여성인권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선미촌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주제로

△성평등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분야에 참여해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로 인증을 받게 됐다.

성매매 집결지 도시재생에 대한 유네스코 인증은 국내 최초이며, 인증 기간은 오는 2022년 7월까지 3년이다.

시는 이번 인증과정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던 어둡고 음침했던 공간을 공권력에 의한 강제단속이나 집단 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참여에 기반한 문화예술 재생방식을 채택해 점진적으로 기능을 전환시켜 △지속가능성 △협치성 △참신성 부분에서 여타의 도시재생사업과는 큰 차별성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았다.

실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심사평가단은 평가문에서 "전주시가 여성인권의 시각 지대인 선미촌을 여성과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킨 사례는 선미촌 지역의 재생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도심 재생 프로그램"이라며 "실질적으로 삶의 역량

을 기르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학습 활동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인증으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이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써 다시 한 번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시는 이번 국내 인증을 토대로 향후 유네스코 국제인증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60년 가까이 시민들에게 음식로 인식돼온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은 공권력이 아닌 문화예술과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문화재생과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점진적 문화재생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을 전개해왔으며, 그 결과 2015년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의 사업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왔다.

전북경찰청, 휴가철 교통관리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영식)은 지난달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교통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주는 장마 이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및 도내 피서지 등 최대 교통량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군산 선유도, 남원 뱀사골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도내 주요 피서지 14개소에 대해 교통경찰 등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주요 교차로 및 혼잡구간에 대해 원활한 교통소통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물게이트, 휴게소 진·출입구 거점근무를 통한 가시적 순찰활동과 압행순찰차를 활용하여 끼어들기, 갓길운행 등 단속도 병행 할 예정이다.

더불어, 휴가철에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졸음운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동시에 진행 할 예정이다.

전북청에서는 올해 교통테마로 음주, 과속운전은 금지하고 안전띠, 안전도 착용을 유도하는 '더하고 빼고' 캠페인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김영태 기자

'나의 생활 정보 서비스' 개선

고령자 등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전주시청 민원실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세금과 연금 등 각종 생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47종을 민원처리 운영창구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나의 생활 정보 서비스'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조회해 해당되는 내용을 제공한다.

정부의 '나의 생활 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가족·건강 5종 △세금·미환급금 9종 △연금 5종 △병역 4종 △범죄기록·과태료 3종 △자동차 5종 △생활금융 10종 △주택·복지 6종 등 총 47종이다.

/송효철 기자

국내 대표 사회혁신도시로 '굳히기'

전주시, 10월 15~19일 '사회혁신주간' 행사 개최
15~17일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로 행사 포문
사회혁신 한마당 마련·사회적경제 박람회도 예정

전주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주시 일원에서 그간 독립적으로 운영돼온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사회혁신 한마당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하나로 엮은 '2019 전주 사회혁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회혁신 주간의 포문은 사람·생태·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화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가 맡게 된다.

5회째를 맞이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지역화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며, △도시재생의 지속성 △로컬푸드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 안과 민간의 역할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1세션 '도시재생의 지속성'에서는 델라던켄 영국 슈마더대학 교수가 '공동체의 자신화를 통한 도시재생'에 대해 발제하며, 2세션에서는 아나 린백 로컬퓨처스 디렉터가 로컬푸드를 주제로 한 지역의 먹거리 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3세션에서는 앨런브라운 미국 공공은행 대표가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사전에 시

민평가단을 모집해 민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5년차를 맞이한 행복의 경제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할 방침이다.

이어 18일과 19일에는 사회혁신이라는 거대담론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사회혁신 한마당'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전주에서 활동 중인 50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기관 등이 함께 만드는 연대와 협력의 장인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회째를 맞이한 '사회혁신 한마당'의 경우 '혁신이나 해볼까'라는 주제로 두 개의 메인 프로그램인 '사회혁신 컨퍼런스'와 '체인메이커수다' 등 △혁신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시민들이 유익하고 유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날 진행되는 사회혁신 컨퍼런스는 공공, 기업, 기본소득, 공동체를 주제로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구범준 세상을 바꾸는 시간 대표, 이대건 재미를 해리 존장 등 대한민국 대표 사회혁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전주의 미래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 둘째 날에는 노동·기술·도시·환경·젠더 등 분야별 사회혁신가들을 초대해 '사소하지만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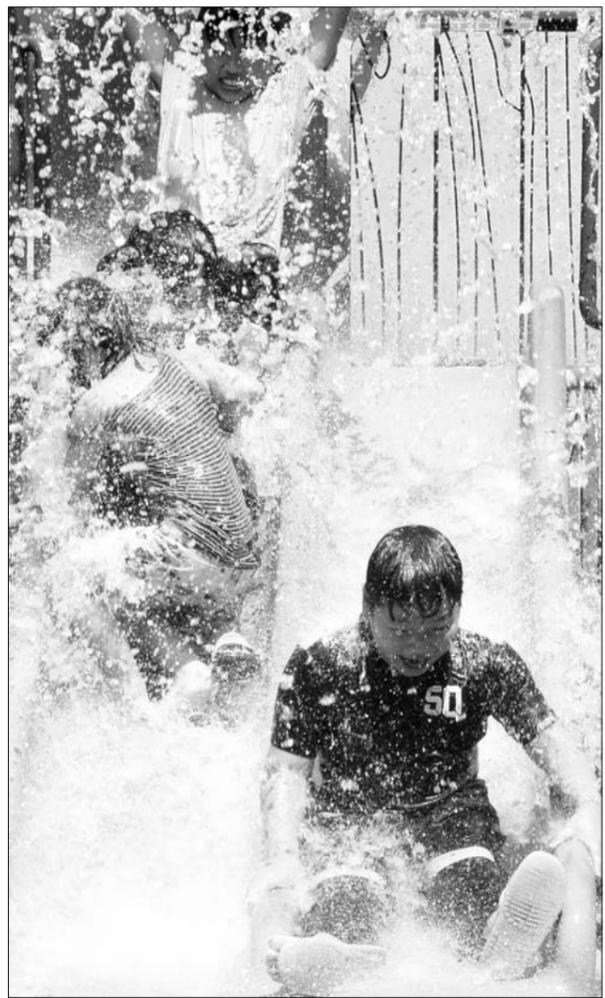
실한 변화'를 주제로 전주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체인메이커수다'가 예정돼있다.

사회혁신 한마당은 또 △혁신 관련 교류의 장인 올림피아 △리빙랩 체험·전시 △사회혁신 명소 탐방 프로그램 △세계 사회혁신 전시관 등 다양한 혁신 부대프로그램과 30여개 부스로 구성된 혁신마켓,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끝으로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전주에서 활동 중인 50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기관 등이 함께 만드는 연대와 협력의 장으로 소셜마켓, 전시홍보관, 창업 및 구인구직 상담소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주지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주 사회적경제 현황투어와 설명회를 곁들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공공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된다. 또,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부서 설치 등 보다 내실 지원 대책이 있는 박람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신계숙 전주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세 가지 행사의 연계로 전주만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가미해 현실에 적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혁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원한 물 미끄럼틀 타고 연일 폭염이 이어진 1일 전주 시내새마을을 찾은 어린이들이 시원하게 내리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무더위를 잊게 해 줄 시원한 소리연극

내일 '삼레, 다시 봄!' 삼레문화예술촌 소극장에서

소리연극 '삼레, 다시 봄!'의 두 번째 공연이 오는 3일 오후 2시 삼레문화예술촌 소극장 씨어터에서 열린다.

'삼레, 다시 봄!'은 완주군 대표 관광지 육성 브랜드 공연사업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 했다.

연극은 일제 토지 수탈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땅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인 '내복'이 어렵적 동무 이면서 일본인 지주의 농장에서 마름 노릇을 하는 '관수'와 갈등을 빚는 것으로 시작해 엄혹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덕구'와 '순덕'의 애절한 사랑과 다가올 봄을 위해 희망을 노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삼레문화예술촌은 삼레역 철도를 이용해 군산으로 양곡을 수출하는 기지역역을 했으며 군산, 익산, 김제와 더불어 양곡수탈의 중심지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지주 시라세이가 설립한 농장창고로 추정되는 건물 6동(목조건물 2동과 조적 건물2동)을 원형대로 보존해 목공소, 책방, 모모미술관, 디지털 아트관, 카페 프레, 소극장 씨어터 등이 등으로 조성한 곳이다.

'삼레, 다시 봄!'은 쌀수탈의 전진기지였던 삼레문화예술촌을 거점으로 공연함으로써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소개하는 정책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투어는 전주역사 국제설계 공모에 참여한 건축가들이 전주의 사업추진 현장과 한옥마을 등을 둘러봄으로써 전주의 도시정책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전주역사 설계 시 전주시정 철학과 비전이 설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투어에 참가한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은 첫날 전주 시민들이터

전주역사 국제설계 공모 참여 건축가 초청 정책투어

넓고 협소한 이용이 불편했던 전주역이 신축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 지어질 전주역사(驛舍)에 전주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긴다.

전주시는 1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주역사 국제설계공모에 참여한 건축가 20여명을 초청해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소개하는 정책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투어는 전주역사 국제설계 공모에 참여한 건축가들이 전주의 사업추진 현장과 한옥마을 등을 둘러봄으로써 전주역사 국제정책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전주역사 설계 시 전주시정 철학과 비전이 설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투어에 참가한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은 첫날 전주 시민들이터

군산항 곡물 저장탑 공사장서 리프트 멈춰... 41명 구조돼

1일 오전 3시 53분께 군산항 6부두 내 곡물 저장탑 신축 공사장에서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멈춰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리프트에 갇힌 근로자 1명을 구조했다.

또 40m 높이의 공사장 옥상에 대피한 근로자 40명을 사다리차 등을 동원해 건물 아래로 무사히 데려왔다. 고립된 지 2시간여 만이다.

근로자들은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곡물 저장탑 공사장의 리프트가 전기적 요인으로 멈춰 선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석훈 기자